2019학년도 동계 이화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 탐사보고서

“한국 발레 대중화를 위한 방안 연구”

B,T.S(Ballet, Takes over the Stage)

목 차

Ⅰ. 서론 3
1. 탐사 배경
2. 탐사 주제 및 목표
3. 탐사일정
4. 인터뷰 사전 준비

Ⅱ. 본론 9
1. 국내 사전조사
2. 해외 탐사
3. 종합

Ⅲ. 결론 34
국내 사전조사와 해외탐사를 통해 연구한 한국 발레 대중화 방안 제시

Ⅳ. 참고문헌 37

[별첨 1] 공연계획서 38

Ⅰ. 서론

1. 탐사 배경

서양의 발레가 한국에 들어와 1946년 최초의 직업발레단이 창설되고 1962년 국립발레단이 설립, 그리고 1963년에는 이화여대 무용과가 국내 최초로 창설되는 등 한국 발레의 역사는 어느덧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금까지의 무용예술은 무용인들만의 예술성에 초점을 두어 대중과의 거리는 좁혀 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공연예술을 찾는 관객의 수요가 문화예술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며 특히 무용공연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무용이 다른 공연예술분야(뮤지컬, 연극, 콘서트)에 비해 비교적 어렵고 난해하다고 인식되어 대중화되기 보다는 특정한 관객층만을 위한 예술로 자리 잡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1)]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용 대중화를 위한 무용인들의 활동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발레는 "신체적 · 정서적 · 교육적 · 사회적 ·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문화센터 · 사설학원 · 학교의 교양수업 및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곳에서 수업"되고있으며 대중들은 미용, 취미활동, 여가생활 등의 목적으로 발레를 적극 활용하고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게 민간 발레 단체들은 발레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발레메이트 페스티벌'이라는 취미 발레인을 위한 축제가 (2019년 기준) 3회째 개최되었으며 참가인원은 1회 때보다 60% 이상, 관객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발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인기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국립발레단은 '찾아가는 지역 공연'과 '찾아가는 발레 교실'이라는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대중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것 이외에 발레에 대한 접근을 이끌어내거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본 팀은 발레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영국 로열발레단을 조사해 국립발레단과 비교해보았다. 우선 영국 로열발레단에서는 발레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발레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 프로그램, 무용수들의 연습 현장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insights 프로그램,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무용 수업 프로그램, 학교와의 연계를 통하여 일반 학생들이 무용 공연을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발레 대중화와 사회공헌 역할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로열발레단에서는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에도 꾸준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매년마다 새로운 창작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클래식 래퍼토리들도 자신들만의 고유한 일로 재구성하여 공연하는 등 대중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로열발레단과 국립발레단의 2019년 '공연 작품의 종류 및 횟수'를 조사한 결과, 대중들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클래식 작품 6개, 한국에서는 공연되지 않은 작품 및 창작 작품 10개, 기획 프로그램 10개로 총 26종류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다. 반면 국립발레단은 기존에 꾸준히 공연되어왔던 작품 6개와 기획 프로그램 3개로 총 9종류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다. 본 조사를 통해 한국 국립발레단은 영국로열발레단에 비해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작품 종류의 다양성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본 팀은 다양한 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발레가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영역이 다소

---

1) 남승리, 「일반인의 무용 공연 경험이 무용인식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19, p.2.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해야하며 현장의 변화에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발레의 대중화는 대중이 인식하는 발레의 가치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탐사 주제 및 목표

이에 본 팀은 '한국 발레 대중화를 위한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발레 대중화에 기여하고있는 영국의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고자 하며, 특히 영국 발레를 대표하는 영국로열발레단이 사회 그리고 대중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발레 대중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탐사 하고자 한다. 더불어 발레 선진국이자 문화 선진국으로 불리는 영국의 시민들은 발레를 어떠한 방식으로 향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중들이 발레에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있는 민간발레단체들의 공연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한국발레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팀은 영국 로열발레단(ROH), The Place, New Adventures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탐사를 진행하여 한국 발레가 발레 대중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탐사 목표로 잡았다.

3. 탐사일정

일자	지역	장소	현지시간	한국시간	활동내용	비고
제 1일 1/15 (수)	인천	인천 공항	시차: -9시간	00:55	출국	비행시간: 11시간 35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공항	04:30	12:30	경유지 도착	경유: 2시간 50분
			07:20	15:20	경유지에서 출발	비행시간: 1시간 20분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	07:40	16:40	런던 도착 및 숙소 이동	이동시간: 1시간 교통수단: 지하철
		Greater London (숙소)	09:00	18:00	숙소 체크인 및 짐 풀고 휴식	관객 인터뷰 준비 확인하기
		런던 시내	13:00	22:00	기관방문(인물 인터뷰)-1. 제니퍼 잭슨 담당자: 제니퍼 잭슨 전화번호: +44 7900 225547	인터뷰 시간: 2시간
			15:00	00:00 (1/17 금)	제니퍼 잭슨 연구실 및 로열발레학교 탐사	탐사 시간: 1시간 30분
		코번트 가든	19:45	04:45 (1/16 목)	로열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관람	공연시간: 약 2시간
			21:30	06:30	관람 후 관객 인터뷰	인터뷰 시간: 약 30분
		숙소	22:00	07:00	인터뷰 정리 및 준비 후 취침	

일자	지역	장소	현지시간	한국시간	활동내용	비고
제 2일 1/16 (목)	런던	런던 시내	13:00	22:00	발레 버스킹 장소 사전답사	답사 시간: 약 4시간
		숙소	17:00	02:00	인터뷰 정리 및 준비 후 취침	
제 3일 1/17 (금)	런던	더 플레이스	18:30~20:00	03:30 (1/18 토)	더플레이스 <Contemportary Dance> 프로그램 참가	체험 시간: 1시간 30분
		숙소	9:30		인터뷰 정리/버스킹 준비 후 취침	
제 4일 1/18 (토)	런던	런던 시내	13:00	22:00	발레 버스킹	버스킹 시간: 30분
		코번트 가든	19:45	04:45 (1/19 일)	로열발레단 <오네긴> 관람	공연시간: 약 2시간
			21:30	06:30	관람 후 관객 인터뷰	인터뷰 시간: 약 30분
		숙소	22:00	07:00	버스킹/인터뷰/다음날 일정 정리 후 취침	
제 5일 1/19 (일)	런던	런던 시내	10:30	21:30	기관방문(인물 인터뷰)-1. 전준혁 담당자: 전준혁 주소: 미정	인터뷰 시간: 약 1시간
		세틀러스 웰즈	14:00	23:00	뉴어드벤쳐스 <레드 슈즈> 관람	이동시간: 20분 교통수단: 버스 공연 시간: 약 2시간
			16:00	01:00 (1/20 화)	관람 후 관객 인터뷰	인터뷰 시간: 약 30분
		숙소	17:00	02:00	인터뷰 정리 및 준비 후 취침	
제 6일 1/20 (월)	런던	더플레이스	16:00	17:30	더플레이스 발레 담당자 인터뷰	인터뷰 시간: 약 1시간
		더플레이스	18:30	22:00	Ballet Level 2 수업 참가	수업 시간: 2시간
		숙소	22:00	07:00 (1/21 화)	인터뷰 정리 및 준비 후 취침	
제 7일 1/21 (화)	런던	코번트 가든	19:30	04:30 (1/22 수)	로열발레단 <인사이트, 앨리스 어드밴처> 체험	체험 시간: 1시간 30분
		숙소	21:30	06:30	인터뷰/체험/다음날 일정 정리 후 취침	
제 8일 1/22 (수)	런던	숙소	13:00	22:00	인터뷰/체험/버스킹 총정리	

일자	지역	장소	현지시간	한국시간	활동내용	비고
		더 플레이스	14:00	23:00	기관방문-2. The Place(더 플레이스) 담당자: Demsey Legrand 주소: The Place, 20 Flaxman Terrace, Kings Cross, London WC1H 9AT 전화번호: +44 020 712 11090 견학 및 담당자 인터뷰	이동시간: 20분 교통수단: 버스 견학 및 인터뷰 시간 : 3시간 30분
		코번트 가든	18:15	03:15 (1/23 목)	<오네긴 퍼포먼스 프리토크> 체험	체험 시간: 45분
					관람 후 관객 인터뷰	인터뷰 시간: 약 30분
			19:30	04:30	<인사이트 터 첼리스트> 체험	체험 시간: 1시간 30분
					관람 후 관객 인터뷰	인터뷰 시간: 약 30분
		숙소	22:30	05:30	체험 정리/버스킹 준비 후 취침	
제 9일 1/23 (목)	런던	런던 시내	15:00	00:00 (1/24 금)	발레 버스킹	버스킹 시간: 30분
		코번트 가든	19:30	04:30	<아이샤 앤드 아비아> 관람	공연 시간: 1시간 25분
			21:30	06:30	관람 후 관객 인터뷰	인터뷰 시간: 30분
		숙소	22:30	07:30	버스킹/인터뷰 정리 후 취침	
제 10일 1/24 (금)	런던	코번트 가든	12:15	21:15	<발레 스튜디오 라이브> 관람	관람 시간: 약 1시간 15분
		숙소	17:00	02:00 (1/25 금)	체험 정리/출국 준비 후 취침	
제 11일 1/25 (토)	런던	숙소	11:00	20:00	숙소 체크아웃 및 공항 출발	교통 수단: TF rail 이동 시간: 1시간
		히스로 공항	16:25	01:25 (1/26 일)	출국	비행시간: 1시간 15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	18:40	02:40	경유지 도착	
			20:55	04:55	경유지에서 출발	
제12일 1/26 (일)	인천	인천공항	07:35	15:35	입국	비행시간: 10시간 40분

4. 인터뷰 사전 준비

본 팀은 <The Royal Ballet>와의 서면 인터뷰, <The Place>무용 프로그램 강사 및 참가자 인터뷰, <ROH>에서 진행되는 공연 관객 인터뷰/프로그램 참가자 인터뷰, <The Royal Ballet>에서 활동 중인 전준혁 발레리노 인터뷰, 거리 설문조사등을 계획했다.

<The Royal Ballet>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는 로열오페라하우스와 로열발레단의 운영, 변화, 공연 레퍼토리 및 프로그램 개발, 발레 대중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질문들을 준비했다.

<The Place>와 <ROH>, <New Adventures>에서는 영국에서 발레를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이들 즉, 공연 관객과 무용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1대1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질문들은 이들이 공연 및 프로그램에 관람/참가하게 된 이유와 경로, 이들의 영국의 발레 대중화에 대한 의견, 무용단체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발레와 관련된 컨텐츠에 대한 이들의 만족도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한 것들로 간단히 구성했다.

<The Royal Ballet>의 전준혁 발레리노와의 인터뷰는 로열발레단의 운영, 대중들의 발레에 대한 인식, 한국 발레의 대중화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했다.

길거리 설문조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질문들은 발레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발레 거리 공연에 대한 대중들의 호응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들로 구성했다. 본 팀은 설문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거리공연을 준비하여 공연 장소 앞에 설문조사 판넬을 설치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로열발레단 서면 인터뷰 질문지>

(1) 로열발레단의 가치와 인식

· 로열발레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계기가 있는가?
· 최초의 목표와 현재의 목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 중장기 목표와 연간 목표는 무엇인가?

(2) Participate /learning 프로그램 관련

·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에 있어서 특정 중심 컨셉이 있는지?
· 로열발레단이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주로 어떤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지? 또한 프로그램별로 참여자들의 수준은 어떻게 구분하여 구성하는가?
· 발레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가?
· 같은 프로그램에 재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Dance with the Royal’과 같은 비기너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발레 전공자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지?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3) 컨텐츠와 레퍼토리 관련

· 새로운 레퍼토리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새로운 레퍼토리의 주제나 컨셉은 누가 결정하는가?
· 협업 과정에서 안무가나 예술가의 다양한 생각이나 관점을 어떻게 맞춰가는가?
· 발레에 사회적 트렌드를 어떻게 접목시키는가?

· 국내에서는 주요 발레단의 새로운 레퍼토리(창작 레퍼토리) 비율이 매우 낮다. 사전조사를 통해 로열발레단에서는 다양한 창작 레퍼토리가 공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창작 레퍼토리가 대중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생각하는가?
·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용수가 주어진 안무에 따라 춤을 추는 동시에 무용가도 안무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주요 발레단은 무용수의 안무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로열발레단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 로열 발레단은 외부의 유명한 안무가들과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 안무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가?

<The Place 무용 프로그램 강사 인터뷰>
Q1. 영국에서 대중들이 발레에 접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Q2. 영국 대중들이 발레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Q3. 영국에는 발레를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연 관객 인터뷰 질문지>
Q1. 어떻게/왜 이 공연을 보러 오게 되었나요?
Q2. 평소에 발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Q3. 영국에서 대중들이 발레를 접하는것은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Q4.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 대중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프로그램 참가자 인터뷰 질문지>
Q1. 프로그램은 잘 즐기셨나요?
Q2. 어떻게/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셨나요?
Q3. 이 프로그램에 대한 당신의 자유로운 의견(장/단점)을 말해주세요.
Q4. 당신이 생각하기에 영국에서 대중들이 발레에 접하기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Q5. 영국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 다양한 발레 프로그램과 공연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준혁 발레리노 질문지>
(1) 영국 로열 발레단의 운영에 대하여
· 영국 로열 발레단을 비롯한 영국의 발레 단체들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어떤 형식으로 발레를 제공하고 있나요?
· 영국 로열 발레단과 국내 발레단의 레퍼토리 부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발레에 있어서 한국과 영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감독이나 안무자, 지도 선생님들이 공연 연습 지도할 때 무용수들에게 요구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느꼈던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2) 대중과 관객들의 발레에 대한 인식
· 한국/영국 두 국가를 비교했을 때, 발레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의 차이가 있나요?
· 한국과 영국 두 국가의 대중들의 발레에 대한 인식 차이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언제 가장

크게 느꼈나요?

(3) 한국 발레 대중화에 대하여
· 영국로열발레단에서 활동하고 계신 한국인 무용수로서 앞으로 한국 발레대중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한국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거리 설문조사>
Q1. 당신에게 발레란?
1) 신나는 것 2) 친숙한 것 3) 낯선 것 4) 지루한 것

Q2. 이와 같은 발레버스킹이 더 생겨난다면?
1) 발레에 대해 더 찾아볼 것이다. 2) 발레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3)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4) 그 외의 의견

Ⅱ. 본론

1. 국내 사전조사
1) 국내 발레단 운영에 대한 조사
우리나라의 대표 발레단인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된 대한민국 최초의 직업발레단으로 한국 발레 역사의 상징과도 같다. 60여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무용수와 안무가, 그리고 훌륭한 예술감독과 작품 덕분에 국립발레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국내 최정상 무용수 60여 명과 세계적인 명작들을 레퍼토리로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을 통해 끊임없이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국립발레단의 '레퍼토리' 경우, 기존에 꾸준히 공연되어왔던 작품 6개와 기획 프로그램 3개로 총 9종류의 공연이 진행되는 등, 로열발레단에 비해 약 30% 정도 밖에 못미치는 종류의 공연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립발레단에서는 '찾아가는 지역 공연'과 '찾아가는 발레 교실'이라는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대중들이 발레를 알아가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은 조사를 통해 한국 국립발레단은 영국 로열발레단에 비해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작품 종류의 다양성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와이즈발레단 김길용 단장 인터뷰
<한국의 민간발레단체인 와이즈발레단의 운영>
김길용 단장이 와이즈 발레단을 15년간 운영 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관객과 팬층 개발이었다. 와이즈 발레단은 레퍼토리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대중적인 댄스컬, 발레컬, 동화발레 등 차별화된 레퍼토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러한 다양한 레퍼토리는 무용수들도 다양한 춤을 출 수 있어 즐겁게 작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와이즈발레단의 최종 목표는 와이즈발레단을 대표하는 컨템포러리발레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부 안무가를 초정하여 창작 작품을 만들어내는 'W시리즈' 프로그램을 2011년 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협업했던 외부 안무가로는 김용걸, 주재만 등이 있다.

그는 발레대중화를 위해서 민간발레단체에서는 좋은 무용수 좋은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관객개발을 하는 것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기관과 정부의 발레에 대한 관심과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예술단체들은 계속해서 예술단체들이 활동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부에 이야기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책들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듯 민간발레단체들과 국공립발레단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가 잘 갖춰져야 할 것이다.

<스완스 발레단>

스완스 발레단은 서울발레시어터 공연의 한 장면에 일반인을 출연시키는 것은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와 함께 시작되어 일반인 취미발레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을 개최하게 된 것이 그 시작점이 되었다. 오디션을 통해 발레단 공연에 출연하고자 하는 일반인 취미발레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스완스 발레단을 창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작년 11월에는 스완스 발레단에서 지젤 전막을 공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주요 관객층은 그들의 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 취미발레생도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스완스발레단과 같은 취미발레단이 한국 발레 대중화를 위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완스 발레단은 32명의 무용수들, 예술감독, 발레선생님 5명, 지도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완스의 무용수들은 매달 30만원의 회비를 낸다. 스완스는 연 15회~20회의 공연을 진행하고 있고 공연에 필요한 공연비, 분장비, 의상비는 이 회비에서 충당한다.

스완스발레단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바로 캐스팅이다. 스완스발레단 또한 일반적인 발레단과 같이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이 결정되는데, 취미 발레단이다 보니 본업과 관련된 사정들로 인해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공연을 준비하고 올리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발레메이트 페스티벌>

일반인 발레취미생들의 발레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 발레메이트 페스티벌을 기획하였다. 발레메이트 페스티벌은 전공자들이 아닌 무용 학원 학생들이 펼치는 '공연', 일반인 취미발레생들이 참가하여 겨루는 콩클인 '그랑프리', 무용수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워크샵', 무용수와의 토크쇼나 플리마켓등을 진행하는 '플레이', 앞서 진행했던 그랑프리에서 우수한 무용수들에게 상을 부여하는 '어워드', 이렇게 6가지 파트로 진행된다. 발레메이트 페스티벌은 개최한지 올해로 3회째로, 회를 거듭할수록 대중들의 참여도가 점점 증가하며 일반인들의 발레에 대한 인식을 많이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김길용 단장은 앞으로도 발레메이트 페스티벌을 진행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발레를 소개하고 알리는 등 발레 대중화에 힘쓰고자 한다.

3) 전) STP협동조합 김인희 이사장 인터뷰

발레STP협동조합은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이원국발레단, SEO(서)발레단, 와이즈발레단, 김옥련발레단으로 6개의 민간발레단이 함께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문화예술의 지역 균형적 발전과 발레대중화는 물론, 더 나아가 무용수의 복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폭넓은 발전 계획과 추진력으로 국내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김인희 이사장은 유니버셜발레단 단원,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서울발레시어터의 초대단장이라는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발레 STP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우

리나라의 발레 대중화를 선두하고 있다. 본 팀은 김인희 이사장을 만나 우리나라 발레 대중화의 진행 상황과 그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발레 대중화라는 말이 생긴 것 자체가 95년 서울발레시어터가 생겨나면서였기 때문에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초반엔 많은 사람들이 '발레대중화는 발레의 격을 낮추는 것이다'라는 많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격이나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발레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삶에도 발레가 스며드는 것, 그리고 발레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며 흥미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레STP 협동조합은 수원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일반 사람들이 발레 의상을 입어보거나 토슈즈를 신어보는 등 발레와 관련된 경험들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축제인 '수원발레축제'를 진행하였다. 이는 전문무대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근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무용이 꼭 극장에서 엄숙히 봐야하는 어려운 예술이 아니라, 재미있고 생각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술이라는 생각을 대중들에게 심어주었다. 이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반인들도 무용에 대해 흥미를 갖게되고 점차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될 것이며 이는 발레 대중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 외에도 장애우들과 비장애우들이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인 '더불어 함께 발레단', 부부들이 함께 발레를 배우고 공연을 올리는 '부부 발레단', '빅이슈'라는 잡지를 판매하며 자신의 삶을 성장시켜 나가는 노숙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홈리스 발레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발레 대중화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레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단체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더 더욱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하다. 실제로 STP협동조합은 재정문제로 작년에 계획한 대중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30%밖에 진행을 하지 못했다.

한국은 그동안 관객들과 소통하는 것 보다는 무용 공연을 보여주는 것에만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무용수들의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최고에 달하지만, 문화 자체의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최소 100년 정도는 늦어져 있다. 여러 발레단과 예술단체들이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중들도 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면, 문화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무용에 대한 필요성 또한 중요해질 것이다. 더하여 국가의 관심도 이끌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여러 단체들은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이나 발레대중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더욱 만들어 갈 것이다.

4) 설문조사 진행

본 팀은 '대중들의 발레에 대한 관심도와 프로그램 참여 현황, 발레에 대한 인식'등을 조사하기 위해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중심으로 약 100명에게 응답을 받았다. 발레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 45%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1년에 보는 공연 횟수는 3회 이하가 24.1%, 4~6회 이상이 18.1%, 7회 이상이 2.4%로 다수의 대중이 비교적 발레공연을 자주 관람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발레 관련 프로그램을 참여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만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발레공연을 관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9.5%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발레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59%가 그렇다 답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발레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에 비하여 대중이 발레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는 다소 낮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1년에 공연을 3회 이하’ 보거나 ‘관심 없음’을 택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티켓 값이 부담스러워서’라는 대답이 약 22.2%를 차지할 정도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저변 확대를 위해 경제적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발레 공연을 잘 보지 않은 이유 중에서 ‘발레는 지루하거나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라는 답이 20.4%에 해당할 만큼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것은 대중들이 발레에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교육적·문화적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회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전문가 혹은 기관에서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발레 공연을 잘 보지 않는 이유 중 ‘발레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라는 답이 약 50%를 차지하였는데, 여기에서 프로그램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대중들이 발레에 대한 정보를 얻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무용 대중화를 위해서는 ‘워크샵 개최’, ‘공연 리허설 투어’등 대중들이 발레를 좀 더 가까이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단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중들의 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한다.

2. 해외 탐사

1) Royal Opera House (The Royal Ballet)

로열발레단은 최근 10년간 세계 3대 발레단이라는 자신들의 유구한 전통과 권위를 내려놓고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며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로열발레단은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에 힘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본 팀은 로열발레단의 공연 <Sleeping Beauty>와 <Onegin>, 램버트 무용단의 <Aisha and Abhaya> 관람, 로열발레단 프로그램 <‘Insight: Onegin performance pre-talk’>와 <Studio Live> 체험, 각 공연 관객 및 프로그램 참가자 인터뷰, 로열발레단 서면 인터뷰, 로열발레단 아티스트 전준혁 인터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로열발레단에 대한 탐사를 진행했다.

<공연 Sleeping Beauty 20200115>

우선 무대 자체가 생각보다 아담했고 양 옆은 좁고 앞 뒤 폭이 깊어 집중이 잘 되는 구조였다. 무대 배경과 장치, 소품에도 매우 신경 썼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또한 무용수들의 의상도 마냥 화려한 것이 아니라 각 캐릭터와 극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잘 어울리면서 살려주는 의상이라 더욱 좋았다. 이렇듯 무용과 안무적인 부분 이외의 요소들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연 3시간 중 총 4번의 쉬는 시간이 포함된 것도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었다. 자주 있는 쉬는 시간이 극의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우려와 달리 이는 실제 공연 진행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관객들은 이 쉬는 시간을 활용해 공연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이어질 다음 씬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으며 3시간이라는 긴 공연시간동안 흐트러질 수 있는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어진 쉬는 시간 시스템을 국내의 클래식 발레 공연에서도 적용한다면 좋

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관객석의 분위기와 관객들의 태도도 인상깊었다. 관객들의 반응과 환호는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은 분위기처럼 매우 다양하고 적극적이었다. 관객들이 고상하게 발레공연을 관람한다는 느낌보다 함께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 스타들의 티켓 파워를 몸소 실감할 수 있었다. 탐사 기간동안 로열발레하우스에서 진행했던 7번의 관객 인터뷰 중 공연을 보러 오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특정 무용수를 보기위해 왔다'는 응답이 대부분 차지했다.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3시간짜리 발레 공연 객석이 꼭대기층 스탠딩 좌석까지 다 꽉 채워져 있는 현장을 직접 보며 다시금 스타 마케팅의 중요성을 느꼈다.
 안무적인 부분에서는 로열발레단만의 특유의 움직임과 색깔을 느낄 수 있었다. 뚜르(턴) 동작이나 폴트브라 부분에서 로열발레단만의 스타일이 돋보였고 각 무용수들의 개성이 돋보이면서 뒤에 있는 군무진들 모두 극에 몰입해서 춤을 추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무용수들의 수준 높은 연기력이 단연 돋보였다.
<관객인터뷰>
 본 팀은 공연 관람 후 관객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영국에서 유학중인 한국인 대학생(22세, 여)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연 <Sleeping Beauty>와 로열발레단/로열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관객 인터뷰 질문과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어떻게 이 공연을 보러 오게 되었나요?
A: 좋아하는 발레리나가 공연을 해서 몇 달 전부터 예매를 해서 보러 오게 됐다.

Q2. 평소에 발레에 대해서 관심이 많나요?
A: 그렇다. 고등학교 때 발레를 전공했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예술 경영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발레에 아주 관심이 많다.

Q3. 영국에서 대중들이 발레를 접하기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A: 런던에서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영국 전역(다른 지역에서는)에서는 자신이 관심있어서 찾아보지는 않는 이상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영국 친구들도 발레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Q4.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 대중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그렇다. 일단 한 달에 한번씩 'Family Sunday'라는 워크샵을 진행하는데, 공연되어지고 있는 작품과 관련한 주제로 엽서 만들기, 토슈즈 꾸미기, 인형 만들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이들이 예술적인 체험을 일찍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체험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또한 ROH에서는 레퍼토리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되게 많다. 전세계 트렌드를 이끌 만한 발레단인만큼 이번 년도가 특히 도전적이다. 이번에 공연되는 'The Cellist'와 같이 외부 안무가와의 협업으로 새로운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 시즌이 가을-겨울-봄-여름이 있는데 마지막 시즌에는 거의 다 모던 작품을 공연한다.

Q5. 한국 발레단과 영국 로열 발레단의 운영에 대해 비교해본다면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차

이점을 느끼시나요?
A: 우선 티켓가격이 다양한 것이 가장 다른 것 같다. ROH는 좌석별 티켓값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Friday Rush'라고 매주 금요일 1시에 다음주에 진행될 공연의 남은 좌석을 저렴하게 예매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예매하는 방식인데 이 때 예매하면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레파토리 부분에서 큰 차이를 느낀다. 클래식 발레가 볼거리도 많고 친숙하지만,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 따분할 수 있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제공해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로열발레단, 공연 <Onegin>

우선 로열발레단에서의 공연은 관객석 자체가 인상깊었다. 이 날 관람한 공연 오네긴은 조금 늦게 예매를 하게 된 탓에 팀원들의 자리가 4층의 스탠딩석이었는데, 이 자리들은 시야제한석으로 무대의 반절정도가 보이지 않는 자리였다. 한국에서는 시야가 제한되는 좌석이라면 아예 판매를 하지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로열발레단은 4층의 스탠딩석, 거기에 시야제한석이라는 자리까지 티켓으로 판매하고있다. 공연을 온전히 볼 수 없는 여건의 관람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객들 모두 고개를 쭉 빼고 집중해서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이렇게 높은 퀄리티의 공연을 멀리서나마 낮은 가격에 볼 수 있다는 메리트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대중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실제 관객 인터뷰에서 관객들은 비싼 티켓 값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만큼 티켓의 가격 또한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이에 로열오페라하우스는 24세 미만의 대중이라면 간단한 가입절차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티켓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Young ROH(Royal Opera House)'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더하여 Young ROH에 가입하면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 주기적으로 공연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기 때문에 대중들이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가까워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제도가 한국에서 시행된다면 영국 로열오페라하우스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인상깊었던 점은 음악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물론 우리가 본 공연은 발레 공연이었지만, 발레와 음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음악의 퀄리티 또한 무용 공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평소에는 오케스트라 피트가 관객석과 비슷한 레벨에 있기 때문에 공연 초반에 인사를 하는 지휘자 외에는 제대로 볼 수 조차 없었지만, 4층 스탠딩석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연주자들의 연주하는 모습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다른 공연을 볼 때보다 음악이 더 와닿아 감정이 더욱 잘 전달되었고, 음악이 주는 감동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공연이었다.

더하여 소품 부분에 있어서도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다. 높은 좌석에서 무대를 내려다보다 보니 무대 바닥에도 눈길이 많이 갔다. 무대 바닥이 일반 댄스플로어가 아닌 카페트 재질의 바닥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조명이 비춰졌을 때 조명 본연의 색깔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한 재질의 바닥과 조명이 어우러지며 작품의 귀족적이고 모던한 느낌을 잘 살려 다른 공연과는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관객인터뷰>

본 팀은 공연 관람 후 관객 4명(A,B,C,D)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공연 <Onegin>과 로열발레단/로열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관객 인터뷰 질문과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20대 여성/ B: 20대 여성/ C: 40대 여성/ D: 50대 여성)

Q1. 어떻게 이 공연을 보러오게 되었나요?
A. 매우 좋은 공연이었지만, 나는 Vadim(캐스팅이 바뀌기 전 무용수)을 기대하면서 보러 온 것인데 무용수가 대체되었더라. 하지만 좋았다.
B. 싼 티켓 값 때문에 예매했다. Young Royal Opera House(Young ROH)가 생각이 나서, 이 제도를 사용해서 자리를 예매했다.
C. 발레를 좋아해서 오네긴을 보고 싶었고, 특히 나탈리아 오시포바가 추는 공연이라 더욱 보고 싶었는데 오늘 운이 좋게도 공연을 보게 되었다.
D. 자주는 못오지만 딸과 함께 오거나 혼자 보러 온다. 티켓 예매를 위해 로열발레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데, 혼자일 때는 표를 구하기 쉽다. 특히 이곳 ROH에서 발레를 즐기는 것이 좋고 나탈리아 오시포바를 보기위해 왔다. 그녀의 다큐를 많이 찾아볼 정도로 그녀를 좋아한다.

Q2. 평소에 발레에 대해서 관심이 많나요?
A. 그렇다. 가끔 발레 수업도 듣는다. (전문적으로는 아니고 취미로)

B. 좋아하는 편이다. 오페라로 Young ROH의 제도를 이용하기 보다는 발레를 더 좋아해서 자주 이용한다.
C. 평소에도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 발레 공연을 보러 자주 올 뿐만 아니라 오페라도 자주 보러온다.
D. 그렇다. 어렸을 때 발레를 배웠다.

Q3. 영국에서 대중들이 발레를 접하기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A. 그렇다. 접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B. 그런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국 전체라기보다는 런던에서 거의 한정된다고 생각한다.
C. 특히 로열 오페라에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다른 곳의 티켓보다 로열의 티켓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English National Ballet와 비교해 본다면 English National Ballet가 더 비싸다.
D. 제법 그렇다. 몇몇 여자아이들은 발레 클래스를 듣지만 여기에 몇 명이나 오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지는 않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티켓 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스탠딩석이나 윗층은 비싸지 않다.

Q4.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 대중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그렇다. 나는 발레 공연들을 좋아하며, 이곳에서는 많은 정보들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연과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디테일들을 알고 집중할 수 있게 된다.
B. 그렇다고 생각한다. Young ROH에 대한 정보 알고 있고 참여하는 편이다.
C. 그렇다. 그리고 더 보고 싶다. 로열의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무용이 혼합된 공연도 보고싶다.
D. 그렇다. 클래식과 모던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도 한다. 나는 못해봤지만, 웹사이트에 가보면 커뮤니티 같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로열발레단, 프로그램 ‘Insights: Onegin Performance Pre-talk’

로열발레단의 인사이트 중 ‘Pre-talk’ 프로그램은 공연되고 있는 작품과 관련된 깊은 이야기를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진행자가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형식의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웠다. 한국에서 대중들이 발레 공연을 많이 찾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본 팀이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발레공연을 ‘1년에 3회 이하’ 보거나 ‘관심 없음’을 택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중에서 ‘발레는 지루하거나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라는 답이 20.4%에 해당할 만큼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공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의 관객들은 대부분 공연을 보러가면 돈을 지불하여 프로그램 북을 구입한 후에 간단한 줄거리나 작품 소개 정도만 파악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로열발레단의 프리토크는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별도의 티켓팅없이 프리토크를 관람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작품 줄거리와 작품과 관련된 깊은 이야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로열오페라하우스의 의상을 총괄하는 담당이사가 직접 나와 의상의 색이나 의상이 어떻게 작품과 어우러질 수있는지, 의상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알려주어 더 집중 해서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이 프리토크는 오네긴 본 공연 전에 바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발레를 자주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 프로그램을 관람한 후 공연을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었다. 예정된 프로그램이 모두 진행된 후에는 Q&A 시간을 가졌는데, 그 곳에 있던 많은 관객들이 질문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답해주는 모습을 보며 일반인들도 발레에 관심이 많고 보다 발레를 깊게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발전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객인터뷰>

본 팀은 프로그램 참가 후 참가자 2명(A,B)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 <'Insight: Onegin performance pre-talk'>과 로열발레단/로열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관객 인터뷰 질문과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20대 여성/ B: 30대 여성)

Q1. 프로그램은 잘 즐기셨나요?
A. 그렇다. 굉장히 좋았다.
B. 잘 즐겼다. 로열 오페라의 Insights 프로그램은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작품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관심 있는 사람들 이외의 일반 사람들에게도 예술을 사랑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 같다.

Q2. 어떻게/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셨나요?
A. Young ROH 제도를 이용하는데 그곳에서 며칠 전에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이메일을 받았다.
B. 푸쉬킨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오게 되었다. 또한 Young ROH로서 소식을 메일로 계속 접할 수 있었고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오기 때문에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

Q3. 이 프로그램에 대한 당신의 자유로운 의견(장/단점)을 말해주세요.
A. 이 발레 공연 보기 전에 이 토크 프로그램을 듣는 것은 처음인데 이 프로그램을 듣고 더 이해가 잘되는 것 같다.
B. 다양한 측면에서 작품을 바라보게 한다. 실제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Q4. 당신이 생각하기에 영국에서 대중들이 발레에 접하기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A. 잘 모르겠지만 Young ROH 제도가 다가가기에 쉽게 하는 것 같다. 마케팅을 상당히 잘하는 것 같다.
B. 접근하기 쉬운 것 같다.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할 수 있고 할인 등 혜택이 많다.

Q5. 영국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 다양한 발레 프로그램과 공연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그렇다. 모던과 클래식 둘 다 제공을 많이 한다.
B.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점점 많아지고 있다. 나는 시네마 릴레이같은 것을 잘 즐겨보는데 환경적으로 발레를 접하는 것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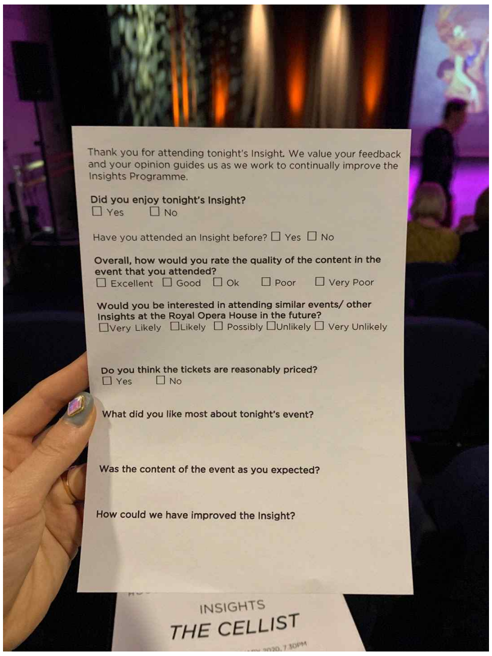
(4) 로열발레단, 프로그램 'Studio Live'
'Studio Live'는 로열발레단에서 곧 공연하게 될 레퍼토리 중 일부분을 발췌하여 본 무대가 아닌 연습실(스튜디오)과 같이 편안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연습실 혹은 평소에 bar로 쓰이는 장소에 댄스 플로어를 깔아서 진행하며, 관객들은 무대와 관객석이 딱 분리되어있는 프로시니엄 무대가 아니라 친숙한 장소에서 보다 가깝게 무용수들의 춤을 볼 수 있다. 발레마스터 혹은 안무가가 무용수들의 공연 연습을 지도하는 현장을 그대로 볼 수 있으며 완성된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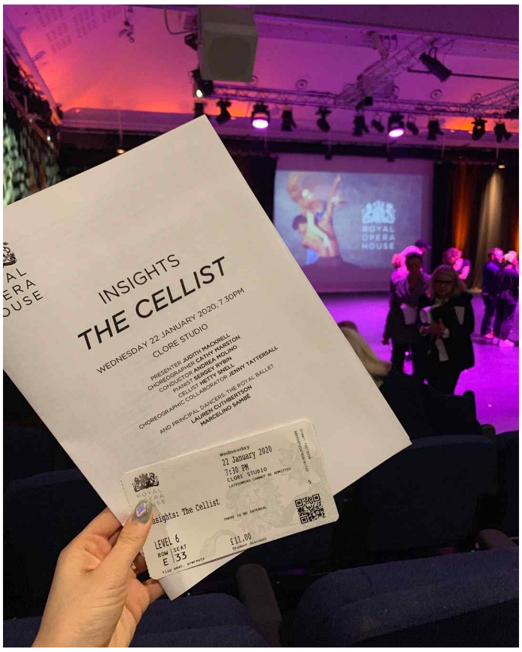
본 팀이 참관한 Studio Live는 로비에 있는 Bar에서 진행되었다. 탁 트여있는 공간에 댄스 플로어가 덩그러니 깔려있는 것이 발레를 프로시니엄 무대에서만 접해봤던 팀원 전원에게는 매우 낯선 광경이었다. 그러나 무대보다 대중들에게 친숙한 공간에서 무용을 접할 수 있어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기존의 프로시니엄 극장에서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무용수들의 리허설을 볼 수 있어 현장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날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작품은 아직 공연 되지 않은 신작의 파드되 부분이었고 신작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관객석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었음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관람하러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무용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완벽하지 않은 공연을 관객들 앞에서, 그것도 정말 코앞에서 선보여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로그램의 아쉬웠던 점은 평일 정오라는 프로그램 시간대였다. 때문에 프로그램 참가자의 대부분이 노인층이었는데 사실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 저녁 시간대에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다양한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방면에서 관객층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5) 로열발레단, 프로그램 ‘Insights: The Cellist’

The Cellist는 올해 처음으로 발표되는 신작인데 이 작품의 안무가와 음악가, 그리고 출연하는 무용수들과 함께 작품의 어떤 장면을 리허설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인터뷰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직 제대로 본 공연이 시작되지도 않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관람하기 위해 자리한 것을 보고 로열발레단이 Insight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굉장한 홍보효과를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Clore studio라는 작은 홀에서 이루어졌는데, 홀도 아주 크지 않고 관객석도 아주 크지 않아서 더 아늑하고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 좋았고, 무대에서 보다 더 가까이서 무용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입장하는 관객들에게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이 적힌 종이와 설문조사를 하는 종이도 함께 주었는데, 본 공연을 하기 전 대중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일지 관객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노력하는 모습이 좋다고 생각되었다.

새로운 작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작품의 줄거리나 이 작품 안무자의 창작비하인드를 알 수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작품 자체에 리프트 동작이 너무 많아서 보는 내내 불안함을 느꼈다. 이렇게 작품을 소개하고 부분적으로 디테일한 연습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작품의 전체 내용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공연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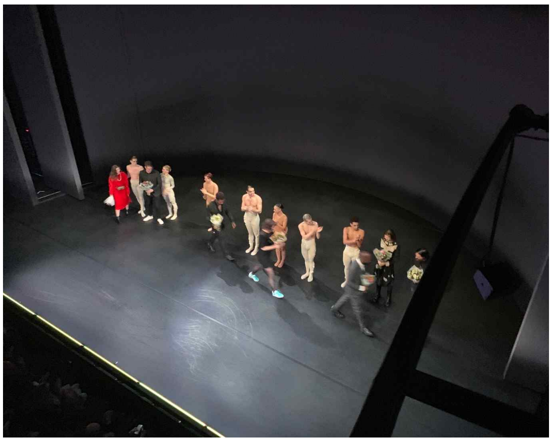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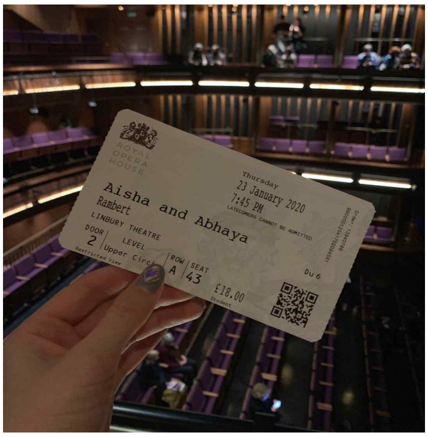
(6) 램버트 무용단, ‘Aisha and Abhaya’ in Royal Opera House Linbury Theatre

이 공연은 본 팀이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 관람하는 공연 중 유일하게 로열발레단이 아닌 외부 무용단이 진행하는 공연으로, 대부분의 공연이 진행되었던 Main Stage가 아닌 Linbury Theatre 에서 이루어졌다. 로열오페라하우스는 Main Stage 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은 Linbury Theatre를 통해 실험적인 작품이나 외부 무용단의 공연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램버트 무용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무용수인 최수진씨가 활동했었던 무용단이기 때문에 팀원들 모두 기대하는 공연이었다.

우선 관객석에 입장하기 전, ‘공연 중 사용되는 음악의 소리가 매우 크니 주의하세요’라는 팻

말과 함께 소리를 막을 수 있는 작은 귀마개를 나누어주는 로열오페라하우스의 직원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점이 사소하지만 기억에 남았다. 관객들을 위해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쓰는 모습이 놀라웠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관객으로서 기분이 좋았다.
 공연은 보통의 무용 공연들처럼 바로 무용수가 나와 춤을 시작하지 않고 줄거리와 배경을 알 수 있는 영상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에 대한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였다. 하지만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웠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다.
긴 영상이 상영된 후에는 무용수들이 나와 원시적인 느낌의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영상에서 배경에 대한 이해를 완료하고 춤을 감상하였기 때문에 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무용과 영상이 융합된 공연 진행은 확실히 기존의 무용공연이 가지고 있던 아쉬운점 (공연의 배경과 춤 동작 의미 해석의 어려움)을 보완해주었다. 이처럼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는 로열발레단의 클레식 발레만을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무용단의 독창적인 내용과 안무를 담은 작품도 공연하면서 관객들에게 다양한 무용 레퍼토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7) The Royal Ballet 서면인터뷰
 로열오페라하우스의 발레 홍보담당 부서 책임자인 Sarah Farrell씨가 서면 인터뷰 답변을 해주었고 인터뷰 질문과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열발레단의 가치와 인식>
Q. 로열발레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계기가 있는가?
A: 로열발레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그 홈인 코벤트 가든에서 전통과 혁신을 세계적인 공연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Q. 최초의 목표와 현재의 목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A: 발레단의 광범위한 레퍼토리는 19세기의 클래식, 로열 발레단 창시자 안무가 Frederick Ashton의 뛰어난 유산 작품과 예술 형식을 앞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레 규범을 발전 시키기 위해, 이들을 이끄는 주역 안무가 Kenneth MacMillan, 그리고 레지던트 안무가 Wayne McGregor, 아티스트 동료 Chritopher Wheeldon, 전속 아티스트 Liam Scarlett의 강렬한 새로운 기준이 되는 작품들을 포괄한다. 로열 발레단은 무용수, 안무가 그리고 사업가인 Dame Ninette de Valois에 의해 창설 될 수 있었다. 그는 작은 발레단과 학교인 vic-Wells

Ballet을 만들었다. 그리고 1931년에 Lilian Baylis를 설득해 런던 북부에 있는 새들러즈 웰즈 극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Q. 중장기 목표와 연간 목표는 무엇인가?
A: 로열 발레단은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의 공연들과 국제적, 영국 전역으로 상영되는 <Cinema Relays>, 'World ballet day', 그리고 <Learning and Participation>과 봉사활동 행사같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한 획기적인 디지털 활동들, <Chance to Dance>, <Create and Dance>과 같은 로열오페라하우스와 영국 전역에서 행해지는 행사를 통해 사람들이 발레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Participate /Learning 프로그램 관련>
Q.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에 있어서 특정 중심 컨셉이 있는지?
A: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발레와 춤을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그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Q. 로열발레단이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단체가 대단히 흥미롭고 매력적인 역사와 환상적인 발레 레퍼토리를 가짐과 동시에 특수성을 가지게 하는 클래식 작품들과 모던 작품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유명 댄서들의 근거지이며 또한 항상 매 시즌마다 댄서들에게 독창적이고 드라마틱한 춤 도전들을 제공한다.

Q. 발레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가?
A: 참가자들은 모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진행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실무자들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다.

Q: 같은 프로그램에 재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Dance with the Royal'과 같은 비기너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발레 전공자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지?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A: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 참석할 수 있다. 각 세션은 모든 연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컨텐츠와 레퍼토리 관련>
Q. 새로운 레퍼토리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무엇인가?
A: 작품들이 서술적이든 추상적이든 발레의 예술 형태가 발전하도록 앞으로 나아가는 작품을 창조한다.

Q. 새로운 레퍼토리의 주제나 컨셉은 누가 결정하는가?
A: 보통 안무가가 결정한다.

Q. 협업 과정에서 안무가나 예술가의 다양한 생각이나 관점을 어떻게 맞춰가는가?
A: 안무가와 예술가는 각자의 독특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작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이 둘은 조화되는 것 보다는 다른 과정이라고 본다.

Q. 발레에 사회적 트렌드를 어떻게 접목시키는가?
A: 각 작품의 주제는 각각의 안무가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Q. 국내에서는 주요 발레단의 새로운 레퍼토리(창작 레퍼토리) 비율이 매우 낮다. 사전조사를 통해 로열발레단에서는 다양한 창작 레퍼토리가 공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창작 레퍼토리가 대중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생각하는가?
A: 우리의 많은 새로운 창작 작품들은 관객들이 하루의 저녁 시간 내에 3~ 4개의 짧은 발레를 볼 수 있도록 하는 mixed bill(한 공연에 여러 작품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은 대중들이 예술 형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고, 예술 형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광범위 한지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을 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대중들이 즐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Q. 영국의 발레 매니아층들이 창작 작품보다 클래식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창작 작품을 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알고 있다. 그럼에도 레퍼토리를 계속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계속 창작 작품을 만든다.

Q.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용수가 주어진 안무에 따라 춤을 추는 동시에 무용가도 안무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주요 발레단은 무용수의 안무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로열발레단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A: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젊은 안무가 프로그램 (1년간의 실습기간 및 훈련)과 발레단의 무용수들이 안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동료들과 함께 작업 할 수 있도록 하는 'Draft Works'라는 연간 프로그램이 있다.

(8) 로열발레단 전준혁 발레리노 인터뷰
발레리노 전준혁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국 로열 발레단의 운영에 대하여>
Q. 영국 로열 발레단을 비롯한 영국의 발레 단체들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어떤 형식으로 발레를 제공하고 있나요?
A: 영국 로열 발레단은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티타임 즐기면서 오페라 극장에 조그마한 스테이지 만들어 춤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나 발레단 투어, 백스테이지 투어, 그리고 무용수의 클래스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개적인 이벤트 등, 발레 공연만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많다. 또한 로열발레단은 Youtube로도 발레단과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게시하여 대중들과 소통하려 하는 등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 많은 후원을 받아 재정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인 발레단이다 보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Q. 영국 로열 발레단과 국내 발레단의 레퍼토리 부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영국 로열 발레단과 한국 국립발레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작품의 가지 수라고 생각한다. 가끔 한국 국립발레단 사이트에 들어가 살펴보는데 대부분 클래식으로 이루어진 정기 공연이 5번, 그 마저도 3~7일 정도만 공연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영국 로열발레단은 한 시즌에 작품 11개, 투어 공연을 제외하고도 약 150회 정도의 공연을 한다. 시즌을 8월에 시작하면 첫번째 공연을 5주정도 연습하고, 무대에 올릴 때쯤 그 다음 공연의 연습을 시작하는 등의 쉴 틈 없는 일정을 보낸다. 이 때문에 짧으면 3주 연습해서 공연을 올리거나 같은 기간에 7개의 작품을 연습한 적도 있다. 이러한 공연 스케줄을 따라가려면 거의 한달에 한 작품씩 하는 셈이다.
또한 국립발레단은 거의 클래식의 작품으로 공연이 구성되는 반면, 영국로열발레단은 클래식 작품이 약 50%, 새로운 현대 작품이 약 50%로 거의 반반으로 진행되는 편이다. 런던이 문화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다 보니 실험적인 작품도 많이 하는 것 같다.

Q. 발레에 있어서 한국과 영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연의 가지 수와 그 횟수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로 큰 차이점은 시스템적인 부분이다. 한국의 국립발레단은 직접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무용수가 각자의 의상을 알아서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영국 로열발레단은 의상팀, 가발팀, 무대 스텝 등 정말 체계적으로 따로 나누어져 있어서 무용수는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다. 마지막은 오케스트라의 차이이다. 발레 공연은 발레 뿐만 아니라 음악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로열발레단의 오케스트라의 차이가 질적으로도 많은 차이를 느끼게 하는 것 같다.

Q. 감독이나 안무자, 지도선생님들이 공연 연습 지도할 때 무용수들에게 요구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느꼈던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A: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연기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수 있는지, 딱딱한 연기가 아닌 정말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각자 다 다르게 생각해서 연기하라고 강조한다. 한국의 발레단에서는 주역이 춤출 때 가만히 있는 등 전체적으로 딱딱하다는 느낌을 많이 준다. 하지만 로열발레단은 주역 또한 무대에 있는 구성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주변

의 무용수들도 계속해서 많이 움직이라는 피드백을 받는다. 관객들은 무대 전체를 보기 때문에 작은 역이라도 자신이 맡은 바를 다 해야 한다.

Q. 발레단 생활 중 힘든 점이 있다면?
A: 상대적으로 힘든 공연 리허설 시간에 비해 틈틈히 쉬는 시간이 적어서 힘들다.

<대중과 관객들의 발레에 대한 인식>
Q. 한국/영국 두 국가를 비교했을 때, 발레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의 차이가 있나요?
A: 한국에서는 팬들이 와서 환호한다는 느낌이면서도 무용수가 실수를 하는지 안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무용수를 존중해주는 느낌이다. 무용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이 자체가 공연의 일부라고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공연의 이야기 전달이 잘되면 이해해준다.
즉 한국에서는 무용수, 그 사람 자체를 즐기는 것 같고 영국에서는 그 사람을 즐긴다기 보다 문화 자체를 즐기는 것 같다.

Q. 한국과 영국 두 국가의 대중들의 발레에 대한 인식 차이를 느끼시나요? 있다면 언제 가장 크게 느끼시나요?
A: 예술가를 보고 반응하는 반응이 다른 것 같다. 한국에서는 발레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잘 모르겠다. 주로 스타를 만들고 팔면서 스타성에만 주목하는 느낌이 든다. 영국에서는 예술가로서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예술가를 스타로서 우대한다는 느낌보다는 예술 작품, 공연을 즐기기 위해 함께하는 일원으로서 대해준다.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댄싱 나인>, <썸바디> 등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조금씩 인식이 변화하고 있긴 한 것 같다.

<한국 발레 대중화에 대하여>
Q. 영국로열발레단에서 활동하고 계신 한국인 무용수로서 앞으로 한국 발레대중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A: 나의 역할은 이곳에서 내가 제일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정도로 잘 되어서 언론에 노출이 되어야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 한국에서 휴가 기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내가 한국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들에게 열정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으려 한다. 김연아, 손흥민과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후배들을 든든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Q. 한국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딱히 변화가 필요하기 보다는 쇠퇴하지만 않길 바라는 마음이 든다.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댄싱9>, <썸바디>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무용을 수면 위에 끌어올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점점 대중들이 인지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과는 또 다른 나만의 방식으로 한국 발레 대중화에 기여하고 싶다.

2) The Place

The Place는 성인 및 청소년을 위한 광범위한 수업, 코스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가를 위한 전문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무용 교육 기관이다. 참가자와 청중들을 무용에 참여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며 여러 형태의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Scatter'와 같이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단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로 하여금 관람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내 사전 조사에 의하면 발레가 어려운 분야라는 편견이 무용을 접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The Place 방문을 통해 이들은 어떻게 비전문가들을 무대에 세우는 것까지 이끌 수 있었는지,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무용'이라는 것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만든 것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팀은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역할까지 이행하고 있는 The Place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용으로 소통하는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파악하며 작게는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변화할 수 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지도자 및 참가자 인터뷰>

본 팀은 프로그램 참가 후 The Place 발레 지도자 Kasper Cornish와 프로그램 참가자 2명(A,B)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과 The Place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인터뷰 질문과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레 지도자: 30대 남성/ A: 30대 남성/ B: 20대 여성)

<The Place Ballet Instructor, Kasper Cornish 인터뷰>

Q1. 영국에서 대중들이 발레에 접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점점 더 쉬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들이 TV에서 춤과 경연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또한 Sadler's Wells 극장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도 새로운 춤을 홍보하며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내 생각에는 New Adventures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있으며, 이들의 행보는 영국에서 대중들이 더 흥미롭게 했고, 대부분 클래식 작품들만 공연되었던 20년 전에 비해 전통과 모던의 균형을 맞춰지게 했다. 뿐만 아니라 시네마에서 라이브 퍼포먼스를 상영하게 되면서 영국의 대중들이 무용을 접할 수 있는 기

회가 많아졌다.

Q2. 영국 대중들이 발레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개인적인 의견은 대중들이 발레에 매료된다고 생각한다. 발레 공연은 3시간 동안이나 진행이 되는데, 만약 발레가 멋지고 대단하고 기술적으로 아름답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피아노 선생님) 전적으로 동의한다. 점점 대중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매체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어서 대중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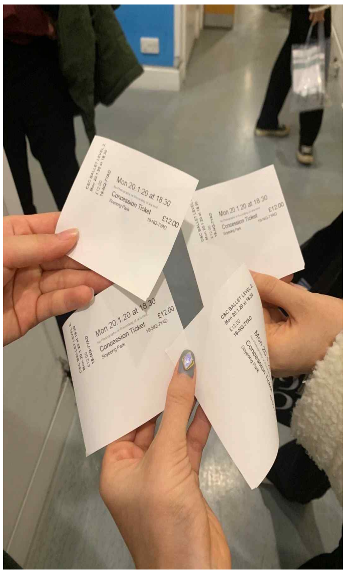
Q3. 영국에는 발레를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A: 2012년 올림픽부터 많은 댄스스튜디오가 생겨났다. 그전에는 학교에 있는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과 같이 발레를 배웠었는데, 올림픽 이후로 무용만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다. 런던에 무용만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많다. 20년 전에는 교회에서 춤을 추곤 했는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아주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Ballet Level 2 프로그램 참가자 인터뷰>
Q1. 어떻게 이 수업을 듣게 되셨나요?
A: 오늘 발레 선생님의 수업을 전에 써머스쿨에서 들었었는데 좋아서 이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 이곳에 왔다.
B: 발레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 흥미가 생겼다. 어렸을 때도 해봤기 때문에 그리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있다

Q2. 당신이 생각하기에 영국에서 대중들이 발레에 접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A: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발레공연을 보기위한 기회가 많다 그리고 상당히 싸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발레는 특정계층을 위한 공연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부끄럽다.
B: 그렇다. 매년 겨울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호두까기 인형이 공연된다. 거의 모든 여자 아이들이 발레를 배우고 보는 것을 즐겨한다. 많은 여자아이들이 중간에 그만두지만 몇 명만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서 한다.

Q3. 당신이 생각하기에 The Place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업들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그렇다.
B: 아주 많다. 특히 발레에 있어서(발레나 컨템포러리나 상관없이) 매우 흥미롭다. 수업의 스타일이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다.

Q4. 발레 수업을 듣는 것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발레를 즐기시나요?
A: 많은 발레클래스와 많은 공연들을 본다.
B: 직접 움직이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점프하고 뛰는 것에 대한 느낌이 좋다.



↑Contemporary Class, Level 2 20200117

↑Ballet Class, Level 2 20200120

3) New Adventures

(1)공연 <Red Shoes> 20200120

New Adventures의 <Red Shoes>는 영국에서 보았던 다른 공연들과는 아주 색다른 느낌의 공연이었다. 한국에서는 발레 클래식 공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 공연을 보기어렵기 때문이다. 공연은 어떠한 대사도 없이 진행되었지만 안무와 소품, 무용수들의 연기들로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는 발레공연이지만 마치 대사가 없는 뮤지컬을 보는 듯해서 더욱 신선하게 다가왔다.

발레 공연을 많이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발레가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매튜 본의 레드슈즈와 같은 레퍼토리는 줄거리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연의 배경, 의상, 음악, 춤, 연기 등 전체적인 공연에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여 누구든지 공연의 내용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중간 중간 재미요소들을 더해 지루하지 않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대중적인 요소와 예

술성 둘 다 놓치지 않는 레퍼토리가 다양하게 개발된다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발레 공연=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웠던 점은 극장 자체에서 찾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공연장들은 대부분 관객석에서의 음식물 섭취나 반입 자체를 금지하는 데에 비해, 이 곳은 오히려 음식물을 들고 들어갈 수 있게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었으며 관객들은 공연을 보면서 간식을 먹거나 간단하게 주류를 즐겼다. 그래서인지 옷도 갖춰입거나 격식을 차리는 다른 극장들과는 다르게 정말 누구든지 편하게 볼 수 있는 공연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는 영화관 같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이처럼 공연과 다른 관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관객들에게 관람에 대한 자유를 줄 수 있다면, '발레는 고급예술이자 특정 계층을 위한 예술'과 같은 부정적인 편견과 인식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관객인터뷰>

본 팀은 공연 관람 후 관객 3명(A,B,C)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공연 <Red Shose>와 극장 Sadler's Wells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관객 인터뷰 질문과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40대 여성/ B: 20대 여성/ C: 30대 여성)

Q1. 어떻게/왜 이 공연을 보러 오게 되었나요?

A: 우리는 자주 이곳에 공연을 보러 온다. 대체로 모든 공연들이 아주 좋고, 이들은 넓고 다양한 종류의 춤을 하며 좌석이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다. 절대 비싸지 않은 평등한 가격이다.

B: 친구가 아주 좋은 공연이라고 소개 시켜주었고, 매튜본이 중국에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나 백조의 호수라는 명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공연을 본 적이 없었기에 이 레드슈즈 공연을 예매하여 보게 되었다.

C:: 2016년 초연 되었을 때부터 보고 싶었는데 이사를 가는 바람에 보지 못했다. 어렸을 때 분홍신 영화를 티비에서 보았는데 그 때의 기억으로 더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공연을 보는 것은 나에게 버킷리스트 같은 것이었다. 이 공연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기대됐었다.

Q2. 평소에 발레에 대해서 관심이 많나요?

A: 발레에 특정하게 흥미가 있다기 보다 춤 자체에 관심이 많다. 이 공연에서는 재즈, 발레 등 다양한 춤을 선보이고 있다.

B: 평소에는 발레에 관심이 없고, 뮤지컬을 자주 본다.

C: 평소에도 관심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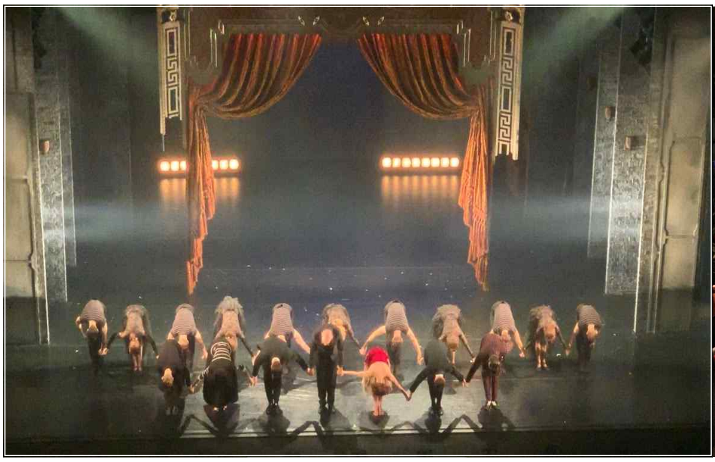
Q3. 영국에서 대중들이 발레를 접하기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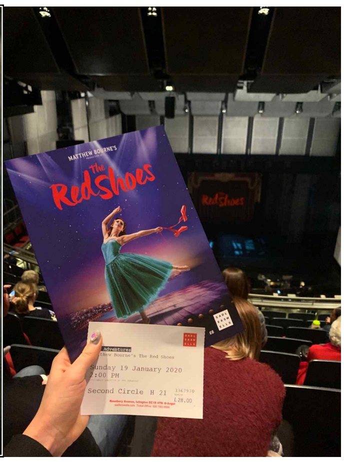
A: 글쎄, 내 생각에는 딱 런던에서만 그런 것 같다. 본인은 멘체스터에 사는데 그 곳에서는 호두까기인형과 같은 크리스마스 발레나 상업적인 공연만 상영 된다. 작은 발레 교습소가 있긴 하지만 매우 작다. 그러나 런던에서는 대중들이 발레를 접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런던에서는 어디서든지 춤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들이 있다.

B: 영국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공연을 예매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C:: 상당히 인기있는 것 같다. 여기 온 사람들만 봐도 그렇다고 생각된다.

Q4. 이 공연은 클래식 발레 공연이 아닌데 어떠한 이유에서 보러오게 되었나요?
A: 전문적으로 대답을 해줄수는 없을 것 같다. 세들러스 웰즈에는 폭넓고 댜양한 관객들이 온다. 그들은 단지 발레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다. 쇼를 구성하는 음악, 유머, 의상, 스토리(게이 커플의 등장 등)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보고 그것들을 즐긴다. 그것들이 잘 융합된 하나의 공연을 보는 것이지 단순히 춤, 발레를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집합체를 보는 것이다. 이곳에는 어린 아이들도 많이 보러 온다. 이들은 주요 타겟층이다. 이들은 가족과 함께 공연을 보러 오며 가족이 많이 보러 온다는 것은 곧 돈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다양한 요소들의 융합이 다양한 공연 관객층을 유도하는 것 같다.
B: 오늘 공연은 본인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평소에 발레는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공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바뀐 것 같다.
C:: 나는 이 공연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영화를 봤을 때보다 더 아름답고 황홀했다. 그리고 나는 매튜본의 유머를 좋아한다. 굉장히 재미난 부분들이 많았다. 공연을 보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저 클래식 부분만 있는 게 아닌 모던적인 부분도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러 오기에 더 매력적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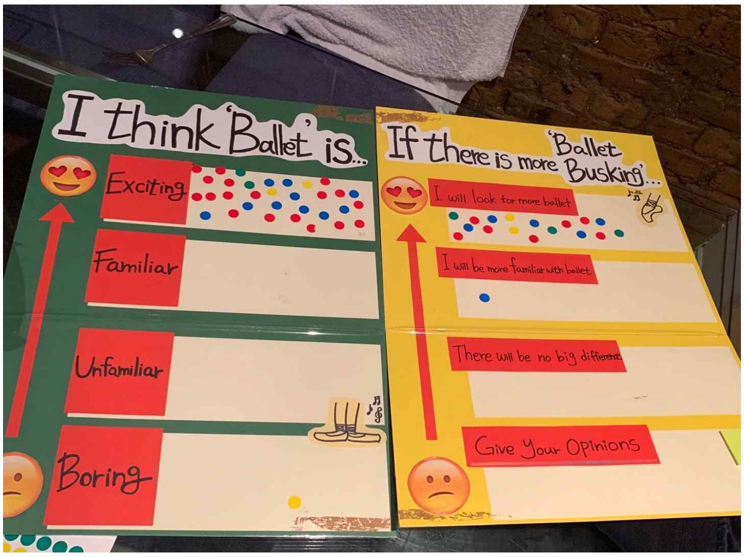
4) 버스킹

본 팀은 탐사 기간동안 런던의 Leicester Square와 National Gallery 앞에서 총 2번의 발레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였고, 공연 후에는 시민 인터뷰와 판넬을 이용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1) 첫번째 버스킹 (20200118 Leicester Square)

(2) 두번째 버스킹 (20200122 National Gallery)

(3) 설문조사 판넬



본 설문조사는 팀원들이 직접 버스킹 하는 중간과 후에 버스킹을 관람한 관객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으며,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최대한 간결하고 빠른 설문조사를 위해 질문에 대한 답을 객관식으로 만들어 관객들이 스티커로 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설문조사의 질문은 첨부한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총 두 가지의 간단한 질문이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 발레란?” 이라는 질문으로 그에 대한 답은 ‘신나는 것’, ‘친숙한 것’, ‘낯선 것’, ‘지루한 것’ 이렇게 네 가지의 답으로 구성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총 33명의 관객들 중 32명이 ‘즐거운 것’이라는 답을, 그리고 1명이 ‘지루한 것’이라는 답을 선택했다. 본 팀의 버스킹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진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버스킹을 관람하고, 긍정적인 답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 일반인 사이에서도 발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와 같은 발레버스킹이 더 생겨난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그에 대한 답은 ‘발레에 대해 더 찾아볼 것이다’, ‘발레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 외의 의견’ 이렇게 네 가지의 답으로 구성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총 18명의 관객들 중 17명이 ‘발레에 대해 더 찾아볼 것이다’라는 답을, 그리고 1명이 ‘발레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라는 답을 선택했다. 이는 대중들에게 발레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대중들이 발레와 가까워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발레의 대중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본 팀이 영국 레스터스퀘어와 네셔널 갤러리에서 총 두 번의 버스킹을 진행해본 결과,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발레를 꼭 극장에서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친숙한 ‘다양한 장소에서 발레 공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대중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답을 얻었으며, 이는 발레를 보다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발레대중화의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종합

본 팀은 한국발레대중화를 위한 방안모색이라는 주제로 발레 대중화를 위해 최근 10년간 대중들과 소통하려는 노력과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영국 로열발레단/영국 로열오페라 하우스를 주요 기관으로 해외 탐사를 진행하였으며 이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공연과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관객/참가자 인터뷰를 진행해 영국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국의 발레 대중화에 대한 의견과 다양한 발레단체들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등을 알아보았고 영국로열발레단과의 서면 인터뷰, 로열발레단 소속 무용수 전준혁 발레리노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탐사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구체화했다.

본 팀이 진행한 국내 사전조사와 해외 탐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의 국립발레단과 영국의 로열발레단은 각 국가를 대표하는 발레단이자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발레단이다. 두 발레단은 운영, 특히 발레대중화를 위한 노력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연 횟수와 레퍼토리 종류, 그리고 대중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먼저 ‘공연 횟수와 레퍼토리 종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로열발레단과 국립발레단의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레퍼토리를 비교해본 결과, 로열발레단에서는 국내에서도 자주 공연되는 클래식 작품 6개, 국내에서 공연된 적 없는 생소한 작품 10개, 기획 프로그램 10개로

총 26종류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반면 '국립발레단'의 경우 기존에 꾸준히 공연되어왔던 작품 6개와 기획 프로그램 3개로 총 9종류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결론적으로 로열발레단이 국립발레단보다 3배 이상의 레퍼토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외 탐사 시 진행했던 전준혁 발레리노와의 인터뷰에서도 언급된 내용이었는데, 그가 "영국 로열 발레단과 한국 국립발레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작품의 가지 수라고 생각한다. 한국 국립발레단은 대부분 클래식으로 이루어진 정기 공연이 5번, 그 마저도 3~7일 정도만 공연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영국 로열발레단은 한 시즌에 작품 11개, 투어 공연을 제외하고도 약 150회 정도의 공연을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두 발레단이 진행하고 있는 레퍼토리의 종류와 공연 횟수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레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하는 '대중들과의 소통'의 방식에서도 두 발레단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영국로열발레단에서는 발레와 관련하여 대중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관객참여형 프로그램등을 메인 공연 이외에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으며 참가자들과 관객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립발레단은 '찾아가는 지역 공연'과 '찾아가는 발레 교실'이라는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대중들이 발레를 알아가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듯 한국 국립발레단은 영국 로열발레단에 비해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공연의 종류와 횟수에서 현저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본 팀이 로열오페라하우스(ROH)에서 진행한 관객/참가자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응답자들은 'ROH/로열발레단이 대중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로열발레단의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관객 인터뷰에서 '왜/어떻게 공연을 보러왔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전원이 '특정 무용수를 보기위해 왔다'는 답변을 주었고 이를 통해 발레 공연 관람의 활성화를 위해 스타마케팅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팀은 발레대중화를 위해 각 국가의 민간발레단체들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내에서는 STP협동조합과 민간발레단체인 와이즈발레단, 영국에서는 New Adventures의 활동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였다. 전) STP협동조합 이사장인 김인희씨와 와이즈발레단 단장 김길용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민간발레단체들이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축제, 공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공헌적인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국가의 장기적인 지원금을 받아내는 것이 어렵고 민간발레단체의 운영에 있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영국 탐사에서는 'New Adventures'라는 민간발레단체의 'Red Shoes'라는 공연을 관람하였고 작품 안에서의 대중적인 요소들과 극장 시설 및 분위기를 통해 발레 대중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알 수 있었다. 본 팀이 국내에서 실시하였던 설문조사에서 발레 공연을 잘 보지 않은 이유 중 '발레는 지루하거나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라는 답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를 통해 발레 대중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중들의 발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Red Shoes'라는 공연은 전체적인 공연에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요소들을 첨가하여 누구든지 공연의 내용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재미있는 요소들을 안무에 포함시켜 지루하지 않게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이처럼 간결하고 친숙한 표현들로 구성된 발레 작품이 대중들로 하여금 이들이 가지고있는 '발레는 접근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예술'이라는 인식을 허무는 것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하여 이 공연이 진행되었던 세들러즈 웰즈 극장에서도 무용 공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공연장들은 대부분 관객석에서의 음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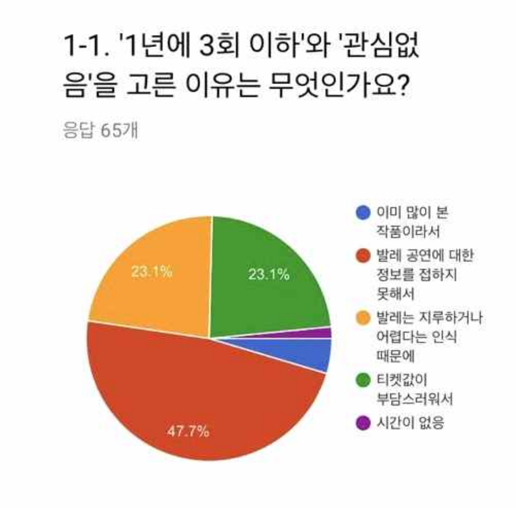
섭취나 반입 자체를 금지하는 데에 비해 이 곳은 오히려 음식물을 들고 들어갈 수 있게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었으며, 관객들이 공연을 보면서 간식을 먹거나 간단하게 주류를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이는 발레 공연이 항상 엄숙한 분위기에서 고상하게 관람해야하는 예술이라는 인식과 경계를 허물고, 누구든지 편하게 볼 수 있는 재미있고 친숙한 예술이라는 인식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었다.

Ⅲ. 결론

본 팀은 국내 사전조사를 토대로 다녀온 영국 탐사를 통해 앞으로 한국 발레 대중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보았다.

1.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

첫 번째로는,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본 팀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발레 공연을 잘 보지 않는 이유 중 '발레는 지루하거나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라는 답이 20.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인식은 대중들의 발레에 대한 접근을 방해할 수 있는 큰 요인이라 생각했고, 영국 탐사를 통해 영국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발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영국 탐사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한국 발레와의 차이점은 레퍼토리의 다양성이다. 우선 영국 로열발레단과 진행했던 인터뷰에 따르면, 로열발레단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전통과 혁신을 세계적인 공연과 하나로 만드는 것이며, 이들의 목표는 사람들이 발레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로열발레단은 한 공연에 3~4개의 짧은 발레(새로운 창작 작품들)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Mixed Bill' 이라는 공연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대중들이 예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고, 예술 형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광범위한지 알게 하며, 그것이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을 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대중들이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준혁 발레리노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로열 발레단과 한국 국립발레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레퍼토리의 가지 수와 공연횟수라고 강조할 정도로 그 차이는 매우 컸다. 실제로 한국 국립발레단은 한 시즌에 4~5가지의 레퍼토리로, 각 공연 당 짧으면 2~3일, 길면 일주일 정도로 긴 연습기간에 비해 매우 짧은 공연 기간을 갖는다. 그렇게 많은 횟수의 공연을 진행

하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좌석은 초대권인 경우나 출연진들의 지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영국 로열발레단은 한 시즌에 11가지의 작품으로 1년에 약 150회의 수많은 공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 공연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을 만큼 대중들의 발레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겁다.

관객인터뷰에서도 대중들의 발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었다. 관객들은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공연을 관람하러 오게 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다양한 레퍼토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다른 다양한 창작 레퍼토리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 탐사를 통해 영국에서는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에 꾸준한 노력을 보이며 새로운 창작 레퍼토리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레퍼토리의 다양화'는 많은 대중들을 이끄는 매력으로 이는 발레대중화의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2. 관객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두 번째로는, '관객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이다. 본 팀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발레 공연을 잘 보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발레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라는 답이 약 50%를 차지하였다. 발레 대중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대중들이 정보를 얻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한 사전조사를 통해 2019년 영국 로열발레단과 한국 국립발레단의 프로그램 가지 수를 비교한 결과, 로열발레단은 프로그램 10개, 국립발레단은 프로그램 3개로 국립발레단에서 대중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진행하고있는 프로그램 수가 로열발레단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로열발레단의 서면인터뷰에 따르면, 로열발레단은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의 공연들과 국제적, 영국 전역으로 상영되는 <Cinema Relays>, <World Ballet Day> 그리고 <Learning and Participation>과 같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한 획기적인 디지털 활동들, 또한 <Chance to Dance>, <Create and Dance>과 같은 로열오페라하우스와 영국 전역에서 행해지는 행사들을 통해 사람들이 발레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면인터뷰를 통해 로열발레단은 <Cinema Relays>와 같이 대중들이 가깝다고 느낄 수 있는 영화라는 매개체와 발레를 접목시키는 등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Chance to Dance>나 <Create and Dance>와 같이 그저 관람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이 집중해볼 만 하다.

본 팀이 영국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 진행한 관객 인터뷰에서 영국 유학생 윤OO씨는 "로열발레단은 한 달에 한번씩 'Family Sunday'라는 워크샵을 진행하는데, 공연되고 있는 작품과 관련한 주제로 엽서 만들기, 토슈즈 꾸미기, 인형 만들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아이들이 예술적인 체험을 일찍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체험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로열발레단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발레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논문에 의하면 대중들의 직접적인 공연 및 무용 프로그램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일반인들이 직접 무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무용인식과 무용지속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무용 프로그램 참여 후 대부분 무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보인다고 밝혔고, 무용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수록 그에 따른 지속의사도 높았다는 결과였다."[2)]

 이처럼 대중들이 발레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발레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부정적인 인식의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노력이 영국 로열발레단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지만, 앞으로 대중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발레 관련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고 진행하여 더이상 발레를 '관람형 예술'이 아닌 '참여형 예술'로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이 또한 발레 대중화에 기여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스타마케팅

세 번째로는, 스타마케팅이다. 영국 탐사 중 진행했던 관객 인터뷰를 통해 유명한 발레 스타들의 티켓파워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스타 마케팅이 발레 대중화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탐사 기간동안 로열발레하우스에서 진행했던 7번의 관객 인터뷰 중 공연을 보러 오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특정 무용수를 보기위해 왔다'는 응답이 대부분 차지했다.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3시간짜리 발레 공연 객석이 꼭대기층 스탠딩 좌석까지 다 꽉 채워져 있는 현장을 직접 보며 다시금 스타 마케팅의 중요성을 느꼈다.

4. 공연 장소의 다양화

 '공연 장소의 다양화'는 대중들의 발레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본 팀이 영국에서 참가했던 로열발레단의 'Studio Live' 통해 평소에는 무대와 관객이라는 거리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멀리서만 보아야 했던 무용수를 눈 앞에서 만날 수 있었고, 무대와 객석이라는 이분적으로 나뉘어진 공연이 아닌 탁 트인 공간에서 다각도에서 무용수들의 연습 현장을 관람할 수 있었다.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발레 프로그램과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대중들은 발레를 꼭 극장이 아니어도 친숙한 공간에서 접할 수 있고, 무용을 극장에서 엄숙하게 봐야하는 어려운 예술이 아닌 자신의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총 6,334명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문화예술 주 관람 지역이 '거주지 주변'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 77.1%로 대다수 시민이 생활권 문화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은 생활권 문화 공간 중 ▲작은 도서관 ▲거리 음악공연 ▲독립서점 ▲복합 문화공간 등을 통해 일상 속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3]이처럼 대중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국에서 본 팀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발레버스킹이 더 생겨난다면 발레에 대해 더 찾아볼 것이라는 답변이 응답자 총 18명 중 17명이 해주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는 대중들의 욕구에 맞게 발레 버스킹이 더욱 활성화 된다면 자연스럽게 발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룰 수 있으며 동시에 발레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본 팀은 국내 조사와 해외 탐사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발레가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영

---

2) 남승리, 「일반인의 무용 공연 경험이 무용인식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19, p.2

3) 「<2018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발표」, 『서울문화재단』, 2019.06.26,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cbIdx=966&bcIdx=103814&type. (접속일 2020.02.09)

역이 다소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 발레 대중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스타마케팅, 공연장소의 다양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팀은 대중들이 발레를 접할 수 있는 교육적,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발레 전문 기관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국립 발레단을 비롯한 국내의 발레단에서는 대중들이 발레를 좀 더 가까이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에 힘써야 한다. 또한 단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중들의 발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할 것이다. 본 팀이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 발레 공연을 잘 보지 않는 이유 중 '발레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라는 답이 약 50%를 차지하였는데, 여기에서 프로그램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대중들이 정보를 얻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국내 무용단체들 뿐만 아니라 이화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도 발레 대중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발레의 대중화는 대중이 인식하는 발레의 가치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중들이 어떠한 형태로 발레를 접하고 향유하기를 원하는지, 이들의 삶에 발레가 어떻게 스며들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은 현장과 그 현장 속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발레 대중화는 발레가 더 이상 특정계층을 위한 고급예술이 아닌, 쉽고 친숙한 예술이라는 인식에 변화를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본 팀이 제시한 방안들이 그 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발레가 '지루하고 어려운 예술'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예술'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회, 대중과 소통하며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남승리, 「일반인의 무용 공연 경험이 무용인식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19, p.2.

-「<2018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발표」, 『서울문화재단』, 2019.06.26,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cbIdx=966&bcIdx=103814&type. (접속일 2020.02.09)

[별첨 1] 공연계획서

공 연 (행 사) 계 획 서		
공연행사 개 요	공연(행사)명	제 목 : 이화 B,T.S 버스킹 부제목 : 발레 대중화를 위한 발레 거리 공연
	공연장르	□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세미나 □일반행사 □기타( )
	일 자	2020 년 2 월 24 일 ~ 2020 년 2 월 24 일(1일간 2회 공연) ★공연시작시간 : 13시 (소요시간: 30 분)
	입 장 료 징수유무	■무 □유
	예 매 처	거리 공연이므로 예매 불필요
	문의처전화	010-1234-5678
출연 및 단체소개	본 팀은 B,T.S (Ballet, Takes over the Stage)팀으로, 이화 동계 "Global Frontier"를 통해 '한국의 발레 대중화를 위한 방안 탐구'라는 주제로 영국 탐사를 위해 결성되었다.	
사 용 자 주요경력	전(팀장,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4년) 양(팀원,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4년) 박(팀원,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3년) 정(팀원,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3년)	
공연행사 주요내용	본 팀은 발레 대중화를 위해 '공연 장소의 다양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임을 제시하기 위해 직접 발레 거리 공연을 영국 탐사 기간 동안 시행했다. 여기서 느꼈던 아쉬웠던 점과 영국 탐사 중 가장 흥미롭게 관람하였던 Performance Pre-talk 라는 프로그램에서 경험한 몇 가지를 보완하여 한국에서 다시 거리공연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전까지는 간단한 소개와 공연으로만 이루어졌던 본 팀의 공연에, 공연 전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소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Q&A 시간을 갖는 등의 요소들을 더하여 보다 발전된 버스킹을 한국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